

졸업, 영역확장의 경계에 서다.

대학 졸업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서 졸업식을 'Graduation Ceremony'라 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뜻을 담은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한다. 2월 24일, UNIST에서 새로 배움을 시작하며 영역을 확장해갈 동문 447명이 탄생했다.



"UNIST 졸업은 제 인생의 의미 있는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UNIST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인재가 되겠습니다."
'2015년 UNIST 학위수여식'이 24일 오후 2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박사 35명, 석사 92명, 학사 320명 등 총 447명이 이 자리에서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UNIST는 2009년 개교 이후 박사 45명, 석사 232명, 학사 782명의 과학기술인재를 배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학부생 7명이 상을 받았다. 우선 정상영(23,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씨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학부생 신분으로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 WPTC(국제무선전력전송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고 발표도 진행한 인재다. 정 씨는 "학부생으로서 큰 학회에 논문을 내고 발표까지 할 수 있었던 건 UNIST라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공학자, 전자공학 분야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과학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제1회 환경부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대상을 받은 임지연(24, 도시환경공학부) 씨는 이사장상을 받았다. 임 씨는 "UNIST는 '우물 안 개구리'였던 저를 깨워주고 자신감을 길러준 고마운 존재"라며 "앞으로 환경

공학 분야에서 실력을 쌓은 유능한 환경부 장관이 되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 졸업 후 쿠팡전자에 입사한 전성은(24,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씨는 울산광역시상상을 받았다. 전 씨는 "항상 새벽까지 과제하면서 한계에도 부딪히고 좌절도 느꼈지만 그만큼 성장했다"며 "앞으로 한국 가전 업계에 혁신을 이끌 '엔지니어링 디자이너'로 거듭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용빈(24,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씨가 울주군수상을, 강현주(23,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씨가 경남은행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학사과정 계열 우수학생으로는 이공계열 강옥중(23,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씨, 경영계열 최민주(24, 테크노경영학부) 씨가 뽑혀 총장상을 받았다.
조무제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 달라"며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며 정직·겸손·봉사라는 덕목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라"고 당부했다.
이 날 학위수여식에서는 UNIST 학생들로 구성된 유니스트라(UNISTra) 오케스트라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졸업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내외 인사 1000여 명이 모였으며, 구자열 이사장과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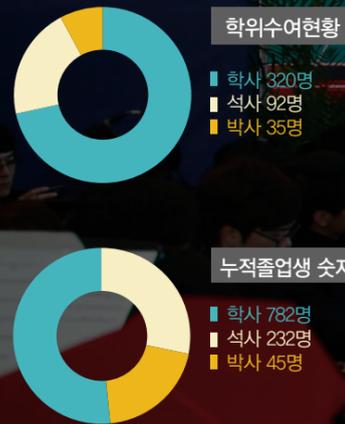


UNIST COMMENCEMENT 2015

February 24th, UNIST Gymnasium

졸업, 영역확장의 경계에 서다.

졸업식 at a glance



“즐거고, 아쉽고, 만족스럽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정상영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2011학번)

정상영 씨는 졸업 소감을 세 단어로 표현했다. 입시지옥을 벗어나 만난 친구들과 공부하고 연구하고 동아리 생활했던 4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정 씨는 “내성적인 편인데 UNIST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했다”며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길렀고 인격적으로도 엔지니어로서도 성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진국 교수팀에서 연구한 경험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는 “밤새 힘들게 실험하면서도 그걸 즐기는 스스로를 발견했고 ‘이 길이 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대학원에서 무선전력전송에 관한 연구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남다른 가전제품,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울산광역시장상
전성은 (디자인및인간공학부 2010학번)

“대중들에게 이롭고 기억에 남을 만한 가전제품을 꼭 하나 디자인해보고 싶어요.” 전성은 씨는 졸업식도 하기 전에 쿠키전자로 입사했다.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에서 산업디자인을 공부하며 가전제품과 가구 등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쿠키전자에서는 밥솔이나 정수기 분야 디자인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사랑 받으며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척 뿌듯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제품의 기획부터 양산까지 개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엔지니어링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게 꿈”이라며 “2기로 입학해 학교와 함께 성장한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졸업 소감을 전했다.



울산의 자랑 UNIST, “고마워요”

이사장상
임지연 (도시환경공학부 2010학번)

울산 동구 바닷가에서 태어난 임지연 씨는 UNIST를 만나 극적으로 성장한 인물이다. 입학 초 전국에서 몰려온 수재들을 보고 주눅 들었는데, 졸업식에서는 학과 수석으로 이사장상까지 받게 된 것이다. 임 씨는 “UNIST가 없었다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UNIST라는 작은 사회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며 자신감을 얻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임 씨는 공단 근처에서 자라면서 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을 발전시켜 UNIST 환경공학부 대학원으로 진학해 이산화탄소 포집 등 대기 분야 연구를 할 예정이다. 그는 “울산을 떠난 적 없는 제겐 UNIST가 고향의 자랑”이라며 “앞으로 훌륭한 환경공학자가 돼 UNIST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정’이라는 신세계를 만나다

울주군수상
조용빈 (나노생명화학공학부 2011학번)

조용빈 씨는 UNIST 조정부 창단멤버다. ‘2013년 1학기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된 조정은 그에게 신세계를 열어줬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활동하며 전국조정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기도 했다. 조 씨는 “조정은 체력은 물론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 리더십을 한 번에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라며 “조정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준 UNIST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정 외에도 조 씨는 농촌살리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녹음도서 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UNIST에서는 학문적인 것뿐 아니라 가치관, 꿈, 살아가는 방법, 소중한 사람 등 억만금을 줘도 사지 못할 것들을 얻었다”며 “졸업 후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가게 됐는데 UNIST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긍정영향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낮선 환경에서 진짜 ‘나’를 찾다

경남은행장상
강현주 (나노생명화학공학부 2011학번)

“4년 내내 낯선 환경에 저를 놓은 작업을 했어요. 그 경험이 진짜 저를 찾게 해줬습니다.” 터키 교환학생, 호주 여행자, UNIST Journal 기자, 기타 동아리의 보컬, 대통령 직속기관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강현주 씨가 4년 동안 가졌던 수석어플이다. 그만큼 알찬 시간을 보냈다는 방증이다. 강 씨는 “UNIST가 주는 많은 기회를 잘 잡았던 것 같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무엇을 잘 하고 못하는지 알았고 진로도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고교 시절 신문에서 ‘이공계 출신 정책가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읽은 뒤 과학기술 정책가를 꿈꾸고 있는 강 씨. 그는 “UNIST 자연과학부 대학원에 진학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며 “현장 경험들을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활약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